

외국계 기업: 미국 정부가 귀사의 해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Jonathan E. Meyer 작성

올해 봄에 제정된 CLOUD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귀사가 미국 외 국가에 소재하며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귀사의 고객 데이터와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LOUD 법에 대한 배경

1986년부터 제 3자가 보유한 전자 데이터에 대한 미국 당국의 접근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개인정보보호법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이하, “ECPA”)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목표 중 하나는 전화 통화 뿐만이 아닌 컴퓨터를 통한 전자 데이터 전송 및 저장된 전자 통신과 관련된 도청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이슈는 저장 커뮤니케이션 법 (Stored Communication Act, 이하, “SCA”)으로 알려진 ECPA 제 II장에서 다뤄집니다. 1986년 이후 ECPA와 SCA는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주요 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된 바, 제3자가 보유한 전자 데이터에 대한 미 정부의 접근에 적용되는 주요 법은 이메일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World Wide Web이 생성되기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SCA에 따라 미 정부는 제3자의 "저장된 유선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거래 기록"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데이터의 기준은 데이터 저장소 제공업체의 유형, 데이터가 콘텐츠인지 비-콘텐츠 (예: 메타데이터) 인지,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 본 백서는 CLOUD 법의 조항 및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법안의 모든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귀하의 기업이 CLOUD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 본 법안과 관련된 특정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고려하여, 미 정부가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 영장, 소환장 또는 특수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 정부와 민간기업 간 논쟁이 증가한 이슈는 SCA의
치외법권입니다. 즉, 미국에 소재한 기업의 해외 데이터에 대한 SCA 적용 가능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이슈와 관련된 주요 판례상 미 정부는 SCA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제3자 제공업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기업은 SCA는 미국 외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사건은 미국대법원까지 이르렀으며, 2018년 2월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지난 3월 23일 의회는 일괄세출안의 일부로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CLOUD)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
소송사건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CLOUD 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CLOUD 법의 주요 조항들은 ECPA를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제공자의 "소유, 관리 또는 통제 하 미국 내외에 소재한 커뮤니케이션, 기록 또는 기타
정보"를 저장한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법은 SCA의 치외관할권 및 SCA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그 외 제한된 유형의
서비스 뿐만이 아닌 고객이나 이용자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시로, 본 법안은 이메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CLOUD 법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다른 국가들과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행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행정 계약이란 미 행정부가
체결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이미 법을 통해 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계약이며, 국제 조약과는 달리 의회 비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LOUD 법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소유한 해외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재가하였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저장 관행과 관련하여 CLOUD 법이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드립니다.

1. CLOUD 법이 외국기업에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가?

모든 연방 법과 마찬가지로, CLOUD 법은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법원은 해당 법원이 소속된 주와 최소관련성 (Minimum Contacts)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소관련성은 해당 주내에서의 특정 활동 수행, 물품 및 용역 계약 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수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주내에서의 재산 소유, 은행 계좌 유지 또는 해당 주에 물품이 배포될 수 있도록 상거래 흐름에 물품을 배치하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와의 최소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도, 연방 법원은 헌법 제 5 조에 따른 절차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 회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업체가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CLOUD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유, 관리 또는 통제"라는 기준은 기업 자회사 및 관련 기업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LOUD 법은 한 기관의 "소유, 관리 또는 통제"에 있는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국회는 "소유, 관리 또는 통제권"이라는 영미법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으며 1937 년 이후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된 문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기업이 해당 정보를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한 기업의 관련 기업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의 정도를 고려하며,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는지, 두 기업이 공통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료를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대행 관계가 있는지, 두 기업의 경영진이 겹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자회사의 일상 업무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수령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사무소를 자회사와 공유하지 않고 자회사의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해당 자료를 얻기 위한 "법적 권리, 권한 또는 자격"이 없을 경우, 법원은 모기업이 자회사의 자료에 대한 소유, 관리 또는 통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치외법권적 데이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CLOUD 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요청 수령 후 14 일 이내에 이를

과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자는 다음 상황에서 데이터 요청을 과기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요청의 대상자가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 해당 자료 공개를 통해 외국법을 위반하게 될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및
- 해당 자료 공개에 따라 외국법 위반이 초래될 경우 해당 외국 국가와 미국간 CLOUD 법에 의해 승인된 행정 계약을 체결되어 있을 경우.

상기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법원은 데이터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 공개가 외국법을 위반하고;
- 정의에 의해 해당 요청을 과기 또는 변경해야 하며;
- 자료 공개 대상자는 미국인이 아니며,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본질적으로, 위 사항은 간소화된 국제 예양 분석으로서 미국과 행정 계약을 맺은 국가에 거주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특정 상황에서 데이터 공개를 거절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4. 미국과 행정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과 행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은 다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계약이 없을 경우 데이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복잡합니다. 첫째로, 해당 회사는 명령을 거부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법원 모독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한 경우 법원은 CLOUD 법에 기재된 간소화된 법칙을 따르지 않고, 보다 모호하고 전통적인 국제 예양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5.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CLOUD법 상 미국과 행정 계약을 맺은 경우,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은 그 외 강제 절차 또는 SCA 및 CLOUD법에 따른 강제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국제 예방 분석의 기준을 보존합니다. 따라서 이용자 또는 "중간 관계자" (예: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은행)는 국제 예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데이터 요청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 데이터 요청 자체는 기밀인가?

보통 데이터 요청 자체는 기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영장을 발급 받아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를 방지하거나, 소환장 또는 일반 법원 명령을 받아 90일간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위협;
- 기소 도피;
- 증거의 파괴 또는 변조;
- 잠재적 증인의 위협; 또는
- 그 외 조사과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7.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의 유형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SCA에 따른 데이터 요청의 경우, 미 정부가 개인과 관련된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또는 해당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요구는 해당 개인의 계정에서 특정 날짜 및 주제 범위내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다음 정보를 요구합니다:

- 사용자 계정에 저장된 모든 이메일의 내용;

- 사용자의 신원과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기타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록, 연락처 목록, 사진 및 파일을 포함하여 계정에 저장된 모든 기록 또는 정보; 및
- 사용자와 제공자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록.

데이터 요청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사기, 사이버해킹 또는 영업비밀 절도와 같은 범죄로 조사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ISP 가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 대부분의 데이터 요청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지 않으며, 오히려 날짜/시간 정보 또는 기타 메타데이터와 같은 비-콘텐츠 정보를 요구합니다.
- 비-콘텐츠 정보가 아닌 저장된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소환장 또는 일반 명령이 아닌 법원에서 명령한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됩니다.
- 소환장 (법원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고객에게 공개를 방지하기 어려운 조치)에 따른 데이터 요청이 법원 명령 및 영장에 따른 데이터 요청보다 훨씬 많습니다.

8. CLOUD 법안의 통과는 SCA 데이터 요청 권한의 영역적 확장 뿐만이 아닌 실제적인 확장을 의미하는가?

현재까지 미 당국은 SCA를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메일과 관련된 데이터 제출을 강제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SCA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얻는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치외법권 관련 조항에 언급된 “모든 기록 또는 기타 정보”라는 문구와 더불어 본 법의 약어 - CLOUD 법 - 는 향후 본 법의 광범위한 사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외부 및 해외에 저장하는 회사는 본 법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CLOUD 법은 아직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법 또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의 통과를 클라우드 공급업체와 같은 제3자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미 당국 권한의 영역적 확장 및 실제적인 범위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본 사항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및 전자메일 저장 관련 지침을 고안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